

<물놀이 시의 주의점>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이나 주말이 되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바다나 강으로 물놀이를 가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바다와 강에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물놀이 시의 주의점을 소개합니다.

[구명조끼]

사람의 부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강에는 물살이, 바다에는 파도와 조류가 있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조 요청하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수난 구조는, 구조하려는 사람 본인도 사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아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사고를 마주쳤을 때는 먼저 주위 사람에게 “다스케테(도와주세요!)”라고 외쳐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강에서의 사고는 소방청, 바다에서의 사고는 해상보안청에 구급 요청을 합시다.

- 강에서의 사고 : 전화 119(소방청)
- 바다에서의 사고 : 전화 118(해상보안청)



[위험이 적은 행동을 하기]

물에 빠진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위험이 적은 행동부터 취합니다.

- (1) 말 걸기
- (2) 물에 뜨는 물건 던지기 (튜브, 아이스박스, 페트병 등)
- (3) 구조용 로프나 긴 물건 던지기 등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바다와 강에서의 물놀이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